

2020년 3월 1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연준과 행정부 부양정책에 기대 급등 연준, CP 매입 기구 설치 발표, 행정부, 1 조 달러 규모 부양책 논의

미 증시 변화 요인: 연준과 행정부 부양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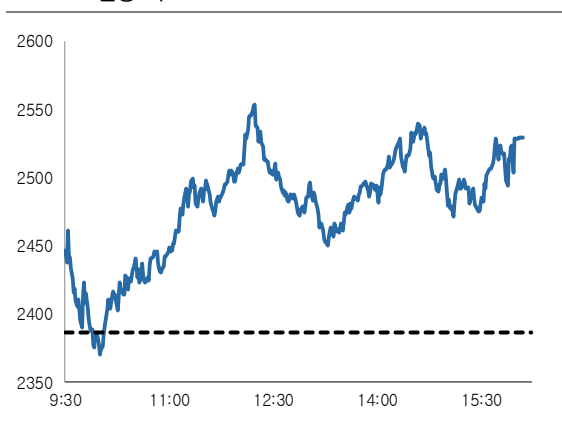
미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했으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그러나 연준이 CP 매입을 발표하고, 므누신 재무장관이 세금 납부 연기와 개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 등 부양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이후 분위기가 전환되며 상승. 다만, 대형 기술주, 반도체, 제약, 바이오 업종이 급등한 반면 항공, 호텔, 자동차 등은 급락하는 등 차별화가 극심(다우 +5.20%, 나스닥 +6.23%, S&P500 +6.00%, 러셀 2000 +6.65%)

오늘 미 증시는 중요한 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여파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시장이 기대했던 상당한 부양 정책이 논의 되거나 발표되며 재차 상승폭을 확대했기 때문. 이는 최근 여러 화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공포에 잠식돼 반영이 안되었다면 오늘은 화재성 재료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물론 기업별 등락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변화가 있었다는 점 주목

연준은 “코로나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기업어음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라며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CP 매입 기구를 설치 한다고 발표. 므누신 미 재무장관 또한 90 일 동안 예상되는 3 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 더불어 개인들에게 2 주안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고,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조. 이는 의회와 논의 되고 있으며 승인도 필요하지만, 행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공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런 가운데 에너지 서비스 업종과 항공, 자동차, 일부 소매유통업종이 급락한 반면,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제약, 바이오, 유틸리티, 금융업종이 급등 하는 등 차별화가 극심.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자 온라인 기반의 FANG 기업들과 코로나 이후 기술력 개선 기대가 높은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업종은 급등. 그러나 이동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해 항공, 자동차, 호텔, 의료 등은 향후 매출 감소 우려가 높다며 급락. 이러한 차별화는 지속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주요 동향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0.72%	209.92	홍콩항생	23,263.73	+0.87			
KOSDAQ	+6.66%	274.66	영국	5,294.90	+2.79			
DOW	+4.20%	487.75	독일	8,939.10	+2.25			
NASDAQ	+4.03%	743.78	프랑스	3,991.78	+2.84			
S&P 500	+8.39%	586.90	스페인	6,498.50	+6.41			
상하이종합	+6.26%	1,007.95	그리스	491.94	+1.56			
일본	+5.77%	346.78	이탈리아	15,314.77	+2.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온라인 VS. 오프라인

아마존(+7.03%)은 필수 생활 물품 주문이 급증하자 10만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했다. 이는 향후 매출 증가 기대를 높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온라인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알파벳(+4.20%), 페이스북(+2.34%), MS(+8.23%), 넷플릭스(+7.00%), 트위터(+1.83%) 등의 강세를 초래했다. 한편, 중국내 코로나 확진자수가 정체되었다는 점을 감안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로 애플(+4.30%)과 쿠팡(+12.98%), 스카이웍(+14.55%) 등 부품주도 동반 급등했다.

리제네론(+11.54%)은 코로나19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했다. 최근 기업들의 코로나 관련 임상 시험 시작 발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술력 개선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머크(+6.52%), 길리어드사이언스(+8.16%) 등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상승세를 촉발했다. 다만,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5,7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자 이동이 중단되고 있다며 델타항공(-11.37%)은 물론 매리어트(-12.94%) 등 호텔업종, GM(-3.24%) 등 자동차 업종은 부진했다. 한편, 연준의 CP매입 발표로 JP모건(+6.11%), 웰스파고(+11.81%) 등은 급등했으나, 무늬신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개인 대출 위주의 씨티그룹(-2.28%)은 하락하는 등 차별화는 이어졌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50%	대형 가치주 ETF(IVE)	+5.55%
에너지섹터 ETF(OIH)	+0.51%	중형 가치주 ETF(IWS)	+5.42%
소매업체 ETF(XRT)	+5.16%	소형 가치주 ETF(IWN)	+5.99%
금융섹터 ETF(XLF)	+5.43%	대형 성장주 ETF(VUG)	+5.80%
기술섹터 ETF(XLK)	+6.81%	중형 성장주 ETF(IWP)	+5.3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4.52%	소형 성장주 ETF(IWO)	+4.40%
인터넷업체 ETF(FDN)	+5.64%	배당주 ETF(DVY)	+6.89%
리츠업체 ETF(XLRE)	+6.07%	신흥국 고배당 ETF(DEM)	+5.99%
주택건설업체 ETF(XHB)	-0.3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4.46%
바이오섹터 ETF(IBB)	+7.32%	미국 국채 ETF(IEF)	-2.51%
헬스케어 ETF(XLV)	+6.28%	하이일드 ETF(JNK)	+0.72%
곡물 ETF(DBA)	-0.15%	물가연동채 ETF(TIP)	-2.80%
반도체 ETF(SMH)	+8.10%	Long/short ETF(BTAL)	+0.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09.92	+0.72%	-21.49%	-48.35%
소재	274.66	+6.66%	-13.07%	-27.56%
산업재	487.75	+4.20%	-16.08%	-31.19%
경기소비재	743.78	+4.03%	-17.17%	-28.71%
필수소비재	586.90	+8.39%	-5.66%	-11.43%
헬스케어	1,007.95	+6.26%	-8.99%	-16.36%
금융	346.78	+5.77%	-13.16%	-32.22%
IT	1,357.53	+6.77%	-11.57%	-23.83%
커뮤니케이션	146.78	+3.99%	-11.38%	-23.66%
유틸리티	290.64	+13.11%	-9.99%	-19.07%
부동산	194.62	+6.94%	-16.30%	-24.9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공포 보다는 호재에 반응 시작

MSCI 한국 지수 ETF 는 7.21% MSCI 신흥 지수 ETF 는 6.89%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155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4.90pt 상승한 229.3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36.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에서는 미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중 한때 상승 전환하는 등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가 연준의 CP 매입을 발표하는 등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급등한 점을 감안 한국 증시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 공포에 잠식돼 호재성 재료가 반영되지 못했다면,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 그리고 미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7.03%)이 급증하는 필수 품목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10 만명의 신입사원 및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려고 한다는 보도로 급등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줄고, 모든 것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사회 변화를 야기시켜 온라인 기반 기업들의 매출 증가 기대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일 보다 1,600 여명 급증한 5,702 명을 기록하는 등 확진자 수 급증으로 항공, 자동차, 호텔 등 이동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경우 급락했다는 점을 감안 이러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경기 기대지수 사상 최저치 급락

2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6%)나 예상(mom +0.2%)를 하회한 수치다. 운송과 가솔린을 제외한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2% 감소되었다.

2 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mom -0.5%)를 상회한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제조업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했으며, 공장 가동률은 77.0%로 전월(76.6%)를 상회했다.

3 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74)과 예상(74)를 하회한 72 로 발표되었다. 1 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655.2 만건)을 상회한 696.3 만건을 기록했다.

3 월 독일 ZEW 경기 기대지수는 8.7 에서 무려 -49.5 로 급락을 보였다. 현재 평가가 전월(-15.7)에서 -43.1 로 급락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6년내 최저치인 27 달러로 급락

국제유가는 6%이상 급락하며 WTI 기준 6년내 최저치인 27 달러로 하락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공급 증가 우려가 지속된 점이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왔으며, EU 가 국경 폐쇄 방침을 발표하는 등 이동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수요 또한 둔화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한다. 더 나아가 일부 투자은행들이 국제유가의 올해 목표를 20 달러 초반으로 하향 조정한 점도 심리적인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화는 연준과 행정부의 부양 패키지 발표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는 독일의 ZEW 경기 기대지수가 급락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급락을 보이자 러시아 루블화 등 에너지 관련 국가들의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연준이 CP 매입을 발표하고 트럼프 정부가 1 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정책을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자 10년물 국채금리가 1%를 상회하는 등 상승을 했다. 한편, 소매판매는 부진했으나, 산업생산과 고용지표가 양호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불구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독일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26.95	-6.10	-21.57	Dollar Index	99.523	+1.48	+3.22
브렌트유	28.73	-4.39	-22.81	EUR/USD	1.1008	-1.56	-2.42
금	1,525.80	+2.64	-8.10	USD/JPY	107.66	+1.73	+1.91
은	12.495	-2.50	-26.30	GBP/USD	1.2077	-1.58	-6.46
알루미늄	1,651.50	-1.40	-2.68	USD/CHF	0.9604	+1.41	+2.17
전기동	5,144.00	-2.77	-7.58	AUD/USD	0.5993	-2.03	-7.87
아연	1,871.00	-3.66	-5.31	USD/CAD	1.4219	+1.45	+3.58
옥수수	344.00	-3.03	-8.87	USD/BRL	5.0017	+0.01	+7.73
밀	499.25	+0.25	-4.40	USD/CNH	7.029	+0.23	+0.94
대두	824.25	+0.30	-5.93	USD/KRW	1243.50	+1.43	+4.22
커피	102.60	-1.25	-10.28	USD/KRW NDF1M	1236.00	+0.49	+4.3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057	+33.90	+25.42	스페인	1.029	+19.20	+68.90
한국	1.427	-9.10	+6.70	포르투갈	1.263	+21.20	+78.40
일본	0.018	+0.10	+6.60	그리스	3.617	+89.90	+201.50
독일	-0.434	+2.70	+35.60	이탈리아	2.351	+19.00	+102.60